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위인가?” “예수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누가 오른쪽에, 누가 왼쪽에 앉을까?” 이런 따위를 다투고 있는 장면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1절 이하에 “지금의 정권은 강제적으로 지배하는 독재정권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위에 있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예루살렘 입성의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게세마니 동산의 이야기가 있고, 유명한 최후의 만찬, 베드로의 예수 부인, 제자들 전부의 도망 등이 있습니다. 예수의 수난 현장에는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난의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자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을 턱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를 본 제자는 없다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클로스’와 ‘마제타이’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에 커다란 긴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이름도 없는 자들 사이의 긴장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2장에서는 1절부터 6절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과 군중이 예수의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몇 번이나 말하는데, 그때 사용된 단어는 ‘오클로스’입니다. 이 말은 지금은 일반화되어 널리 알려졌습시다만, 그리스어로는 경멸적인 뜻을 담은 말입니다. ‘라오스’라면 ‘국민’이라고도, ‘백성’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오클로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경멸받는 ‘천민’ 또는 ‘불가촉천민’(신체적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천민) 등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주변에 있었던 사람은 대개가 다 ‘오클로스’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에는 ‘오클로스’라는 말이 36회나 나옵니다. 라오스도 2회 나옵니다만, 이것은 구약성서를 인용한 문장에서만 나옵니다. ‘오클로스’, 이것이 ‘마제타이’(제자들)와 대칭을 이루는 자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를 한두 개 들어보지요. 마르코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가 오클로스와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고 있다고 예수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예수는 오클로스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인가?” “바로 이 오클로스다”라고. ‘마제타이’가 아니라 ‘오클로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14장 3절 이하입니다.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예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예수가 다른 누구를 향해서도 말한 것이 없는 상찬(賞讚)의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전해져서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칭찬의 말을 예수는 오직 이 여인에게만 했을 뿐, 베드로나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예수의 케리그마의 중심 사건인 수난의 현장에는 여자들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들, 곧 제자들은 전부 도망쳐버리고 단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을 발견하는 권리도 여자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긴장관계에 있는,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이었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집니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점은 마르코복음을 마태오나 루가와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